L2 2019년 7월 8일 월요일 라이프 metr⊕



새로 나온 책

기후변화가 부른 여섯 번째 대멸종 위기

지구사에는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대멸종은 지구의 종 절반 이상이약 100만년 이내에 멸종하는 사건으로정의된다. 지난 5월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가 대멸종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류는 자연에 순응하는 대신 환경을 인간 종에 맞게 뜯어고치며 살아왔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어졌고그 결과 지구 온난화와 서식지 파괴가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생물 멸종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체 동·식물 종의 8분의 1인 100만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보고했다.

더 이상의 생물 멸종을 막기 위해서 는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자 는 말한다.

인간의 문명은 기후의 참을성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 저자는 인류가 너무 늦기 전에 기후의 한계점이 무엇



대멸종 연대기

피터 브래넌 지음/김미선 옮김/흐름출판

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종의 원인으로 '행성 충돌'을 꼽는다. 지표면 위에 얇 게 발려 있던 생물이 순식간에 사라지 는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 지구에 살던 공룡을 죽인 게 정말 소행성이었을까.

현대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지구 상의 대멸종을 촉발했을 것이라고 의 심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탄소'가 있 다고 확신한다.

온난화, 오존층 파괴, 미세플라스 틱 오염, 해양 기온 상승 등. 여섯 번째 대멸종을 앞둔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 막 경고.

448쪽.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보물탐뎡



장수찬 지음/김영사

책은 저자가 직접 수집한 고문서와 서책 컬렉션을 소개하며 독자들을 고서 수집의 세계로 이끈다. '기록 덕후'라고 불릴 만큼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선조들은 신분이나 지위,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수많은 기록문서와 책을 남겼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거니와 '왕이 쓰지 말라 했다'는 내용까지 기록돼 있다. 낡은 종이 뭉치를 통해 본 선조들의 삶과 애환. 264쪽. 1만4900원.

뉴욕타임스 부고 모음집

윌리엄 맥도널드 편저/윤서연 외 6명 옮김/인간희극



비토리아 여왕, 아인슈타인, 마이클 잭슨 등. 책에는 세계 사적인 인물이 사망할 당시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부고 기사 들이 망라돼 있다. 사망이라는 엄숙한 순간에 맞춰 작성된 문장들은 한 인물에 대한 가장 응축된 콘텍스트가 된다. 영 웅이든 악당이든 역사 속으로 비상한 인물만을 선별해 다뤘 다. 세계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기념비적인 작품.

720쪽. 2만5000원.

웰빙 토종 수제피자 '뽕뜨락', 제 2의 도약 선포

신메뉴 개발로 가맹점과 상생 박차

뽕잎 추출물을 넣어 특허 받은 토종 피자 브랜드 '뽕뜨락피자'가 가맹점과 상생을 위한 신메뉴 개발 계기로 다각 적 투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경기침체에 겹친 1인 가구 증가 요인 등으로 외식업계 가 움츠려든 상태다.

㈜웰빙을만드는사람들(대표 명정 길) '뽕뜨락피자'는 가맹점과 동반성장 을위해신메뉴 '관자네 온 새우' 피자를 새롭게 출시하고, 홍보에도 박차를 가 한다는 방침을 세워 업계에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출시된 '관자네 온 새 우' 피자는 한국식 입맛에 맞춰, 느끼한 맛 을 줄이고 저염식 레시피로 개발되었다.

뽕뜨락피자 광고대행사 KIC애드 관계자는 "광고는 LGU+, SKB TV, KT 올레TV 등 IP티비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된다"며 "7월 1일부터 뉴스 전문채널에서도 송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1일부터 진행된 신메뉴 프로모션은 '요기요' 앱에서 '관자네



'관자네온 새우' 피자.

/뽕뜨락피자

온 새우'라지 세트 주문 시 1만4000원 할인된 2만9900원에 주문이 가능해 소 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또 '카카오톡주문하기'는 주중에 '관 자네 온 새우'와 '한턱쏘시지'신메뉴 라지세트 2종을 각각 1만4000원 할인 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주말에는 러 블리 8종의 4000원 할인 프로모션도 함 께 진행된다.

뽕뜨락피자는 1992년 양평동에서작은 피자 가게로 시작해 한때 연매출 200억원을 올릴 정도로 성장한 브랜드다. 뽕뜨락피자 명정길 대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선 투자가 요구돼, 가맹점과 상생을 통해 제2 도약기를 추진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민희기자 Imh@



🛗 내게 맞는 호텔 찾기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왔다. 피 서철마다 고민되는 것은 바로 숙 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시설은 그에 못 미치는 불상사를 겪 지 않기 위해 분주히 정보를 수집해 야 한다.

인기있는 피서지일 경우 고민은 더욱 크다. 부산 해운대가 여기에 해당하겠다. 동반자와 함께 숙소 안 에서 간단한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면 서 바다를 바라보며 수영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 바로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이다.

◆해운대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긴다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은 해운 대 해수욕장과 도보 1분, 지하철 해운대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드넓은 백사장에서의 휴식은 물론, 각종 먹거리, 엔터테인먼트로 가득한 해운대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길수 있다. 지상 30층 규모 타워에 해운대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231개 객실과 레스토랑, 카페, 야외 수영장, 미팅룸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시설을 갖췄다.

특히, 해운대를 바라보는 야외 수영장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듯한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한다. 전 객 실에 주방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이 완비돼커플부터 가족까지, 단기부 터 장기투숙까지 휴식과 파티, 비 즈니스와 레저 등 어떤 목적의 여행 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시원한 오션뷰…'인생샷' 남겨 볼까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투숙객 전용으로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은 4 층 옥외에 위치해 해운대 바다를 한 눈에 전망하며 여유롭게 휴식을 즐 기고 '인생 사진'도 남길 수 있는 명 소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히노키탕과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썬베드도 마 련돼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수 영장 입장권은 호텔 투숙객에 한해 현장에서 인당 1만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수영장 입장권이 포함된 '루프탑 스위밍 패키지'를 이용하면 호텔 객 실에서 누리는 휴식은 물론 야외 수 영장까지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다. 객실 1박과 수영장 입장권 2매, 조식 할인 및 체련실 무료 이용 혜택으로 구성됐다. 오는 8월 31일까지(7/19~ 8/18 제외)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슈







왼쪽부터 시계방향대로 복층 스위트 룸,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외관, '풀사이드 메뉴' 프로모션.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페리어룸기준9만9000원부터다(세 금·봉사료 포함).

수영장 운영 기간 동안 '풀사이 드 메뉴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돼 수영장에서 가벼운 먹거리를 즐기 며 이색적인 여유를 만끽할 수 있 다. 수영장과 같은 층에 위치한 레 스토랑 '디어스'에서 메뉴를 주문 하면호텔 직원이 수영장까지 직접 가져다 준다. 메뉴는 치킨, 불고기 덮밥, 가라아게 덮밥, 스파게티와 조각 피자 세트, 분식 세트 중 선택 할 수 있다.

해수욕장 도보 1분·역에서 5분 위치 야외수영장 히노키탕·썬베드 마련 탁 트인 오션뷰에 넓은 객실 구성

김영태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총지배인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제 관광명소인 해운대는 호 텔의 격전지라 불릴 만큼 경쟁이 때 우 치열한 시장"이라며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 텔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 받아온 이 유는 뛰어난 전망과 접근성을 갖춘 최적의 입지, 넓은 객실과 오션뷰 야 외수영장 등 차별화된 시설을 합리 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등 해운대를 찾는 고객의 핵심 니즈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일찍찾아온 더위로 6월부터 여행 수요가 높을 것을 대비해 야외 수영장을 6월 초 앞당겨 개장했다. 고객 반응이 좋아 6월 조기 예약률이 기간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0~20% 높았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여행 시장 속

에서 고객의 새로운 니즈를 파악하고 한 발 앞선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방 시설 완비… 파티·장기투숙 도 문제 없어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은 고품 격호텔서비스와 집 같은 편안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이다. 최소 36.3m² (약 11평) 이상 넓은 객실로만 구성돼쾌적한 휴식을 제공하며 전 객실에 주방 시설이 완비돼 장기투숙객도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더블 침대와 싱글 침대가 1개씩 비치된 슈페리어 패밀리룸은 합리적인 가격에 오션뷰까지 즐길 수 있어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는 고객에게 인기가 높다.

럭셔리한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스위트룸을 다채롭게 갖춘 점도 특 징이다. 이색적인 복층 스위트와 고 층에서 탁 트인 오션뷰를 선사하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해운대 정면 과 광안대교 방면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코너 스위트, 최고급 로얄 스위트와 펜트하우스까지 총 5 종 류의 스위트룸이 준비돼 있다.

김영태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총지배인은 "숙박을 넘어 다양한 문화 활동, 파티를 즐기기 위해 호텔을 찾거나 오래 머무르며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등 호텔이 일상화되는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다"며 "객실 크기가 넓고전 객실에 주방 시설을 완비한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만의 강점을 살려 해양레저, 장기투숙 등 해운대의일상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패키지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민서기자 min0812@metroseoul.co.kr